코로나 이후
지속가능한 사회

유미호 /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







우리의 지구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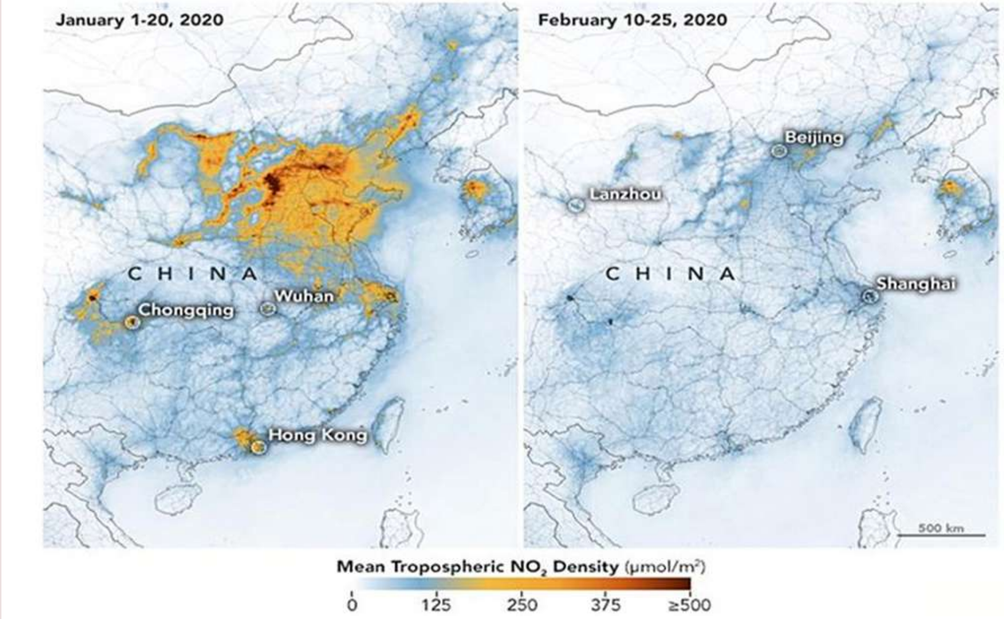






강제된 멈춤

자연 회복


January 1-20, 2020
February 10-25, 2020
CHINA
Chongqing
Wuhan
Hong Kong
Lanzhou
Beijing
Shanghai
500 km
Mean Tropospheric NO2 Density (µmol/m²)
0
125
250
375
≥500

하.지.만.
코로나19에서도 늘어나는 플라스틱 쓰레기



- 코로나19 심각단계 상향, 언택트 소비 증가
- 일회용품 줄이기 사회적 노력 물거품
- 코로나19 방역과 환경 사이의 딜레마, 과도한 불안감

식품업소 내 일회용 컵 · 일회용 페트 물병 ·배달음식 용기·인터넷 배송량 폭발로 인한 포장재·
일회용 비닐봉투 재사용·마스크 등의 의료용품





재활용 가능 자원을 재활용할 수 없는 이유

- 배출량 과다
- 시민 배출 행태
- 재활용 수거 및 처리기업의 고충
- 생산유통 단계의 문제

1회 용 플라스틱 없는 삶, 사회로 전환

플라스틱-어택 (PLASTIC ATTACK)

매장에서 물건을 산 후 과대 포장된 플라스틱과
비닐 등을 분리해서 버리고 오는 운동

계산대 직원은 바코드를 찍는 대신
고객이 담아온 물건의 무게를 잰다.

안 만들고, 안 주고, 안 쓰고, 재활용의 극대화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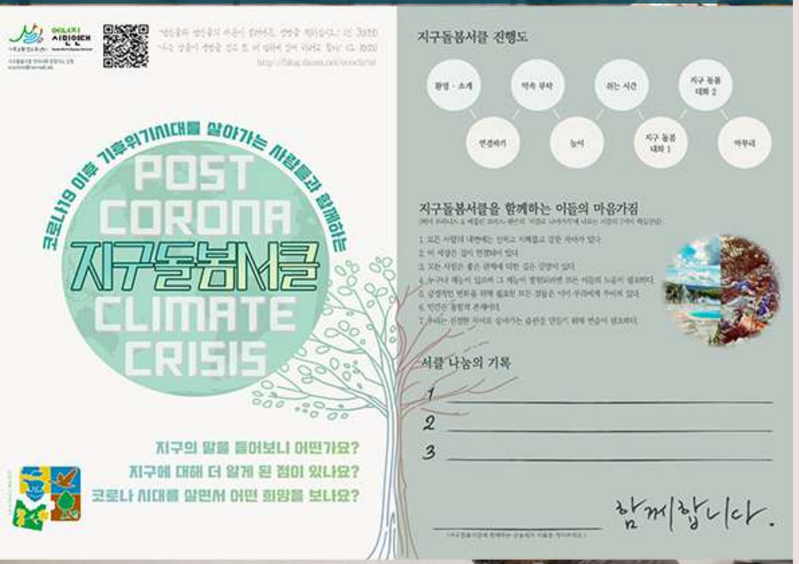
재활용 의식 개선

1. ‘일회용 = 위생적이고 안전하다’
   ➔ 안전한가?
2. ‘일상 멈춤 = 환경개선 = 경기침체’
   ➔ 경제시스템 문제 제기

순환경제 연습

3. 계속되는 변형 바이러스에 의한
   일상 면역력 증진
4. 정부·산업계·지자체 간
   순환경제 비전 공유 및 시행
   (환경부, 2020년 자원순환정책
   대전환의 원년 선포)







환경오염, 회복 가능한가?
기후위기, 극복 기회의 시간은?

기후위기 심각성 공감

환경 회복을 위한 노력

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위해
어떻게 변화시키고 지속시켜낼 것인가?